

광주 7대문화권 새 밑그림 나온다

문화전당권 등 7대 거점 설정

최신 경향 맞춰 시책 연계

오늘 DJ센터서 최종보고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문화적 도시환경 사업의 핵심인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계획 연구 최종보고회가 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07호에서 열린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발표된 예비종합계획과 단위문화권 사업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획안은 도시를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보존권 ▲아시아미디어문화권 등 7대

권역으로 특화하고 문화거점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문화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을 광주시의 시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에 의뢰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각종 사례조사와 연구, 회의, 관계 기관 간 답회 등이 실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전문가들을 초청해 7대문화권 권역의 개념과 범위, 성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시의회, 자치구,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송진희 호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등이 보고와 토론을 벌인다.

포럼 측은 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결과를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민곤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최종안은 새 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될 것이다"며 "향후 국제 확보사업 발굴에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이 지난 6일 개최한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자립을 위한 토론회'.

“장애아동 역량 미리 키워 자립 도와야”

광주복지재단 토론회

(재)광주복지재단은 지난 6일 오후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강당 1층에서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동양육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때 처

해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토론회에 앞서 재단은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10개 기관의 만 15세 이상 퇴소준비 아동(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147명에 대해 설문조사했고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

(재)광주복지재단 정책개발팀 김진희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장애아동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체계구축 ▲특화된 자립준비 역량강화 ▲자립안전 환경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6일 개최한 '광주평생교육 100년사' 심포지엄에서 유정현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평생교육 100년사 심포지엄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평생교육 100년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의 교육문화 활동과 시민운동을 포함한 100년사를 되돌아보고 광주의 뿌리찾기를 통해 앞으로의 아

카이빙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 용교 광주대 교수가 광주 평생교육 역사와 보존을 주제로 발제했고, 임형택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응식 광주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이계양 광주 YMCA 이사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기우 호남학원

구원 박사, 한신에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기연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운영팀장이 참석했다.

이계운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살전체가 학습과정인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선구자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민의 인생방향 재설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호남 최대의 도매시장인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오는 11일부터 동절기 화재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에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과 4개 법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상인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법을 안내하는 전단지 배포할 예정이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매사 중도매인 출하자 등 1000여 명이 종사하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2000여 명인 대형 도

매시장으로 화재발생 시 심각한 피해와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서부도매시장은 최근 화재예방을 위해 기존 373개의 소화기 중 10년이 경과된 소화기 119개를 교체하고, 50개를 구입해 이용자가 많은 곳에 추가 배치했다. 11월 24일에는 소방전문가의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문 대통령 국정과제 '광주 AI 창업단지' 시동 건다

사전 기획비 10억 국비 반영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주력 분야가 될 인공지능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는 7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전 기획비 명목으로 2018년도 국비 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팀을 꾸려 기획한 사업으로, 제19대 대선 공약과 제로 채택된데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어 내년도 국비까지 반영됨에 따라 광주시는 국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10년간 ▲국립 AI연구원 설립 ▲AI 캠퍼스 조성 ▲AI 창업생태계 조성 등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립 AI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로 기존 대학이나 출연기관과 차별화된 대형 융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된다. 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I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글로벌 AI 인재 5000명 배출 등이 이뤄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수립과 함께 연구개발·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주요산업 및 인프라와 연계해 광주를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광주의 대표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국내에서도 시작단계에 들어섰으며 광주시는 미래 먹거리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국가 경쟁력 등을 확보, 광주가 융합형 4차 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음식점 근무자 2년마다 소방교육 의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영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은 반드시 2년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종사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2016년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1월2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전에는 영업전 1회만 교육 받음)

교육은 5개 소방관서와 한국소방안전

협회 사이버교육(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관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을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